

연구논문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종합지수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of Retirement Readiness Composite Index of Korea

최현자^{a)} · 주소현^{b)} · 김민정^{c)} · 김정현^{d)} · 조혜진^{e)}

Hyuncha Choe · So-Hyun Joo · Min-Jeung Kim · Jung-Hyun Kim · Hye-Jin Cho

최근 급속화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시기부터 생애설계의 관점에서 은퇴설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노후를 경제적, 심리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측면을 종합한 관점에서 은퇴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은퇴준비종합지수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내·외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20~60대 이상 1,8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다양한 시물레이션과 회귀분석을 통해 은퇴준비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개발된 은퇴준비지수를 조사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수준을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론(systems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재무설계과정을 반영하여 생활에 대한 평가와 계획 및 실행을 은퇴준비에 적용하는 SPA모형을 개발하여 은퇴준비종합지수를 개발하였다. 은퇴준비종합지수는 ‘행복한 은퇴생활’을 목표로 현재생활에 대한 평가(만족도, Satisfaction)와 계획(Planning)과 실행(Action)의 합으로 여가, 일, 가족 및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이라는 행복한 은퇴생활의 7개 하위영역(RAINBOW)의

* 본 연구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a)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b)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 c)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 d)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대우연구교수
- e)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대우연구교수 조혜진.
E-mail: jazzy98@snu.ac.kr

현재 은퇴준비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정도는 100점 만점에 58.3점이며 7가지 하위영역 중, 일과 재무적 측면의 준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은퇴준비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은퇴생활의 7가지 하위영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목표에 따라 계획을 세운 후 실행으로 옮기는 전 과정이 고루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은퇴준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계의 특성에 따른 생애은퇴설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제어: 은퇴, 은퇴준비지수, 은퇴준비종합지수, SPA모형, RAINBOW지수, 체계론

As individual's life expectancy increases, post-retirement period is getting longer and thus people must start planning for their post-retirement life as soon as they enter the job market. Preparation for post-retirement life should include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factors; however, so far retirement planning has been focused on financial preparedness. As such existing evaluation tools for retirement readiness have mainly gauged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tirement readiness index, a retirement readiness composite index, customized for Korean society which includes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aspects of life domains to gauge current retirement readiness levels of Korea.

The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SPA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systems theory and financial planning process for retirement planning. The SPA model includes satisfaction with one's present living conditions, planning for retirement living, and action needed to achieve post-retirement well-being. The retirement readiness composite index consists of seven life domains: leisure, work, family, friends, residence, peace of mind, financial resources, and health. Second, the retirement preparedness level for Korean households was 58.3 out of 100 when assessed with the retirement readiness composite index. The scores were especially low in the domains of work and financial resources. Third,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was related to age, health status, employment stability, and financial resources.

The retirement readiness composite index can be us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retirement preparedness and the entire retirement planning process with the seven life domains should be considered to achieve desired retirement level of living.

Key words: retirement, retirement readiness index, retirement readiness composite index, SPA model, RAINBOW index, systems theory

I. 서론

최근 급속화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시기부터 생애설계의 관점에서 은퇴설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소자녀화 및 부모봉양에 대한 의식 부재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노후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자신의 노후를 경제적, 심리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출이 증대하면서 자신의 노후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의 사회보장 또한 부족하여 은퇴 후 급속한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퇴자산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산에 대한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은퇴 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은퇴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 본 사람들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67%에 달하지만 실제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고 하였다(조혜진 2010). 백은영(2012)도 통계청의 사회조사자료(2009)를 통해 은퇴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연구한 결과, 아예 준비할 능력이 없거나(50%),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거나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각각 39%와 8%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고자 하는 의견은 3%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고자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은퇴준비를 하는 노력과 실행에 옮기는 행동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동시에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은퇴시장이 확대되고 사회 및 금융시장 전반에서 은퇴생활과 은퇴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다양한 은퇴 관련 조사와 지수가 개발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은퇴준비지수(2008, 2010)와 메트 라이프

재단과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통합은퇴준비지수(2012),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후준비지표(2012) 등이 대표적인 은퇴관련 지수이다. 외국에서도 은퇴에 대한 태도와 관련 행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은퇴자협회(AARP)가 주축이 되어 G7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등 10개국의 은퇴준비의 안정성을 조사(retirement security survey)한 바 있으며, 미국의 EBRI(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서는 1996년부터 은퇴확신조사(Retirement Confidence Survey)를 수행하여 저축이나 은퇴설계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 근로자와 은퇴자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와 행동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은퇴 관련 연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재무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으며, 비재무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통합적 생애설계관점에서 은퇴설계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들어 은퇴 후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단순히 은퇴 후의 경제적, 재정적 수준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질(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웰빙이 은퇴 후 개인의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준비지수에는 재무적인 측면과 동시에 비재무적인 측면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과는 현저히 다른 복지제도 및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우리나라 가계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종합은퇴설계를 위해 은퇴준비정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은퇴준비지수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생활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은퇴준비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은퇴준비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은퇴설계 모델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 가계가 자신의 은퇴준비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기존 은퇴지수의 고찰

국내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은퇴준비지수는 주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은퇴준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개발되었다. 국내 최초의 은퇴준비지수는 피델리티

자산운용과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의 은퇴준비지수(2008, 2010)이며 이는 국제비교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재무적 측면의 준비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은퇴의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은퇴준비지수는 최근 발표된 메트 라이프 재단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통합은퇴준비지수(2012)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후준비지표(2012)가 있다. 그러나 통합은퇴준비지수의 경우 은퇴의 비재무적인 측면의 준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미국의 MMI에서 개발한 지표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함으로써 개별 소비자가 스스로의 은퇴준비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지 않아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고, 은퇴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주거와 일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노후준비지표는 통합은퇴준비지수와 같이 비재무적인 측면의 준비를 고려하고 있고, 개별 소비자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나, 은퇴생활에서 중요한 주거에 대한 고려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은퇴생활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준비지표라고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소득과 자산 영역에서의 준비상황을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측정하여 측정은 용이하나 객관적인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은퇴자 또는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준비정도 및 은퇴 관련 지식측정지표를 개발하였으나 대부분 재무적 측면에 치중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에서 Retirement Readiness Index를 개발하여 일, 여가, 관계, 소득 및 복지, 재무설계 영역으로 나누어서 은퇴준비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는 비재무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으나 지수화는 재무적 측면만을 활용하거나 은퇴자만 조사대상으로 하여 한계가 있다. 미국 Boston 대학의 은퇴연구센터에서는 Retirement Risk Index를 개발하여 근로자 가계에서 재무적으로 은퇴준비가 미흡한 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여 은퇴소득 충분도에서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가계를 위험가계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전기/후기 베이비부머와 X세대로 한정하였고, 재무적 측면만을 지수화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는 은퇴확신지수(Retirement Confidence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주관적인 은퇴재무설계에 대한 평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이 근로자에 국한되고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은퇴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 내용상의 한계가 있다.

한편 Sun Life Financial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마케팅용으로 US Unretirement Index를 개발하여 거시경제, 개인재무, 건강,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은퇴준비를 측정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중요도 인식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Foundation for Fiduciary Studies는 The Retirement Index를 조사하여 은퇴설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자금을 저축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은퇴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재무적 측면만을 지수화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호주의 AMP Retirement Adequacy Index와 영국의 Hartford International Retirement Index, 그리고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Retirement Readiness Index 등도 역시 재무영역만을 지수화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밖에 International Living의 Global Retirement Index는 주거 및 주거환경에 국한하여 지수를 개발하였고, 호주의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는 적정성, 지속가능성, 청렴성의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11개 국가의 연금시스템을 지수화하여 비교하였으나 연금부분에만 국한되어 있고, 국가별 비교용으로 만들어져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종합해 볼 때 국내 은퇴지수들은 사례가 많지 않으며 재무적 측면의 은퇴준비만을 측정하거나 조사영역을 은퇴생활의 일부만을 포함하거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계의 종합적인 은퇴준비정도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또한 해외 은퇴지수들은 은퇴자금 마련이나 운용 등을 평가하는 재무적 측면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측정을 통해 은퇴지수를 산출하고 있어 개인의 실질적인 준비상태를 평가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III. 이론적인 논의와 은퇴준비종합지수 모형의 도출

1. 웰빙(well-being)과 생활의 하위영역

1) 웰빙(well-being)

은퇴생활의 종합적인 준비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먼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혹은 웰빙(well-being)의 차원으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상태(Miriam Webster Dictionary)로,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이나 만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Pollard & Lee(2003)는 웰빙을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상태 즉 행복으로 정의하면서 웰빙이 긍정과 부정의 연속선상에서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요인들은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인 요소(자존감, 성향 등), 물질적 혹은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건강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때 상대적인 부나 소득이 절대적인 소득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Helliwell & Putnam 2004). 이 상에서 볼 때 웰빙은 심리적 요인, 건강, 물질적 요인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웰빙과 밀접한 용어로 웰빙보다 좀 더 객관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삶의 객관적인 수준과 주관적인 만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예를 들어 Felce & Perry(1995)는 생활의 질(QOL)을 개인의 일반적인 웰빙을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 보면서 신체적,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인 웰빙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를 종합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의 연구에서도 은퇴생활의 만족도 혹은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주관적인 만족도 즉, 웰빙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Barrett & Kecmanovic 2011; Frey & Stutzer 2002).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거주형태(Lee & Park 2006)와 도시 및 농촌 등 거주지역이 있으며,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의료보장, 질병, 경제상태(Gabriel & Bowling 2004; Sohn 2006)가 있다. 또한 심리상태 중 우울감이나 자아존중감 등도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노인 스스로 독립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상생활동작과 신체적 기능 및 건강상태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Lin, Yen & Fetzer 2008; Sohn 2006)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Levasseur, Tribble & Desrosiers 2009)나 여가활동(Gabriel & Bowling 2004) 등이 삶의 질과 관련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웰빙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선택 및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한 영역에서 측정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은퇴 후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단순히 은퇴 후의 경제적, 재정적 수준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질(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연구로 전환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관적인 웰빙이 은퇴 후 개인의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핀란드에서 수행된 16년간의 종단연구에 의하면 주관적인 웰빙은 은퇴 후에 많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Seitsamo 2007), 현재의 웰빙을 측정하여 은퇴생활의 웰빙을 전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웰빙 또는 생활의 하위영역

웰빙 또는 생활의 질이라는 개념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위구성요소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웰빙 연구에서 개인의 환경 및 만족도는 생활의 영역에서 조사되어 왔으며 생활영역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심리적·정신적 요소, 물질적·경제적 요소, 관계 및 사회활동 요소, 건강 및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와 국가기관의 연구자료에서 웰빙의 하위개념을 다양하게 분류하였다(Felce et al. 1996; Cummins 1997; Hagerty et al. 2001; Schalock & Verdugo 2002; Schalock 2004; WHO 1993; HRSDC 2011). 이들 연구들은 웰빙의 영역을 신체적 웰빙, 물질적 웰빙, 사회적 웰빙, 생산적 웰빙, 정서적 웰빙, 권리적 웰빙, 건강, 사회적 웰빙, 일과 직업 활동, 관계적 웰빙, 안전, 공동체의 소속감, 가족, 친구와의 관계 및 안전, 독립적 웰빙, 자기 개발, 자기 확산, 사회적 참여, 권리 등의 하위요인들을 중심으로 각각 6~7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Felce et al.(1996)은 웰빙을 신체적 웰빙, 물질적 웰빙, 사회적 웰빙, 생산적 웰빙, 정서적 웰빙, 권리적 웰빙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Cummins(1997)은 건강, 물질적(경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일과 직업 활동, 정서적 웰빙, 관계적 웰빙, 안전의 7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Hagerty et al.(2001)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7가지 영역의 사회지표를 건강, 물질적인 웰빙(경제적인 면), 공동체의 소속감, 일, 정서적(정신적, 감정적) 웰빙, 가족, 친구와의 관계 및 안전으로 분류하였으며, WHO(1993)는 육체적, 환경적(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독립적 웰빙의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캐나다의 정부기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미시적인 측면에는 일과 자기 학습이 포함되며, 재정적 안정, 가족, 주거, 사회참여, 여가, 건강, 안전, 환경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chalock & Verdugo(2002)와 Schalock(2004)는 삶의 질(QOL Indicator)을 정서적 웰빙, 사람들 간의 관계, 물질적 웰빙, 자기개발, 신체적 웰빙, 자기 확산, 사회적 참여, 권리 등의 8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웰빙과 유사한 개념으로 조사되어 온 생활만족도 모델(living satisfaction model)에서는 건강, 가정생활, 이웃, 주거, 생활표준, 직업 등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Andrew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Ahn 1996). 생활만족도 연구를 웰빙 연구와 함께 고찰하는 이유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직결되며(이지현 외 2008), 많은 연구들에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삶에 만족한다고 전제(김미혜 외 2005)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생활설계프로그램 개발연구(홍성희 외 2006)에서는 생활설계의 영역을 경제생활, 주거생활, 가족생활, 여가생활, 건강생활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생활의 질 연구(김미령 2011)에서는 건강, 교육, 사회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경제적 준비 등으로 조사한 바 있다.

국내의 다양한 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삶의 영역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고령화 패널(노동연구원)은 소득·자산, 고용, 건강, 가족,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의 5개 영역으로 조사하였고, 국민노후보장패널(국민연금연구원)은 채무, 일, 건강, 관계, 여가, 주거의 6개 영역으로, 그리고 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상황, 근로 및 일, 건강, 주거, 사회복지의 5개 영역으로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와 자료들을 종합할 때 은퇴 이후 희망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 희망하는 생활(웰빙 혹은 삶의 질)이 포괄하는 영역(웰빙 혹은 삶의 질에 대한 하위영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문헌고찰 결과(Cummins 1997, Hagerty et al. 2001, Andrew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등을 바탕으로 웰빙 혹은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삶의 영역은 여가, 일, 가족과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채무, 건강 등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종합지수 개발을 위해 은퇴생활의 하위영역으로 위와 같은 7가지 영역을 선정하였다.

2. 체계론(systems theory)과 재무설계

은퇴준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Ando &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income hypothesis)을 사용하여 은퇴자금 마련이나 은퇴소득 및 소비지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최현자 외 2009, 안중범 ·

전승훈 2005, 여윤경 2002). 최근 들어서는 인간의 태도와 규범 등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Ajzen(1991)의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은퇴준비 행동에 적용하는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주영 · 조혜진 2012, 백은영 2012, Ajzen 1991). 그러나 본 연구는 은퇴준비를 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 체계론에 근거하여 은퇴준비지수를 마련하고자 한다.

웰빙의 개념은 개인의 환경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인 만족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체계론적 맥락에 대입해 보면 객관적인 상황들을 투입(input)하여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선택으로 관리 또는 설계되는 변환(Throughout)과정을 거쳐서 결과물(output)인 웰빙으로 개념화된다고 할 수 있다.

관리과정 중 하나인 계획(planning)은 체계론의 변환과정에 포함된다. Deacon & Firebaugh(1981)는 계획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상하는 과정으로 미래의 표준과 행동의 순서에 대해 일련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Gross et al.(1980)은 가족의 미래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계획은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목표달성을 측정하는 표준을 개발하여 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계획은 관리과정의 첫 출발점으로서 전체 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다음 단계인 실행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홍은실 · 황덕순 1996). 실행(action)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실제 활동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만약에 계획대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시정해 나가는 과정이 포함된다.

계획자가 가지는 다양한 속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계획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부합되는 개념은 목표지향적 계획행동(goal-oriented planning)이라고 할 수 있다. McCaskey (1974)는 목표지향적 계획행동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계획행동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목표중심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편 은퇴를 미리 준비하는 은퇴설계는 재무설계의 한 분야로서 종합재무설계과정을 통해 은퇴준비가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무설계는 고객과의 관계정립, 재무상태분석, 재무목표설정, 재무행동계획수립, 재무행동계획실행, 점검 및 피드백 등의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고객과의 관계정립이라는 기초단계를 제외하면 5단계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재무설계과정에 체계론을 바탕으로 한 은퇴준비모형을 적용

하면, ‘행복한 은퇴생활’이라는 목표설정 후 현재의 상태를 만족도를 통해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준비단계를 거쳐 정기적 점검을 한 후 피드백을 통해 이를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현자 외(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재무설계는 은퇴자가 건전한 자산상태를 유지하고 저축하는 데 유용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부분재무설계를 하는 것은 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재무설계에 있어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저축 및 투자행동을 실행하는 5단계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재무설계를 하는 완전재무설계는 재정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계획수립과 실제 실행의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 베이비부머 조사(2010)에 의하면 수도권 거주 500명의 베이비부머 중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57%였는데 반해, 그 중에서 실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사람은 4%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은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퇴대비계획을 세우거나 은퇴대비비용 저축·연금계좌를 가입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설계에 있어서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워 이를 행동에 옮기는 실행이 은퇴준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준비모형에서 현재생활상태 평가와 계획 그리고 실행의 합으로 현재의 은퇴준비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은퇴준비에 있어서 실행의 비중이 높아야 함을 보여준다.

체계론과 재무설계를 은퇴준비에 적용시켜 보면, 행복한 은퇴생활이라는 목표를 투입하여 현재생활수준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 점검과 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웰빙이라는 산출물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현재 은퇴준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행복한 은퇴생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삼아 그 격차를 메꾸는 것이 행복한 은퇴생활에 도달하기 위해 각 가계가 해결해야 하는 과업인 것이다.

3. 개념적 은퇴준비모형

본 연구에서의 개념적 은퇴준비모형은 행복한 은퇴생활을 목표로 웰빙의 하위영역인 7가지 즉 여가, 일, 가족 및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에 대해 현재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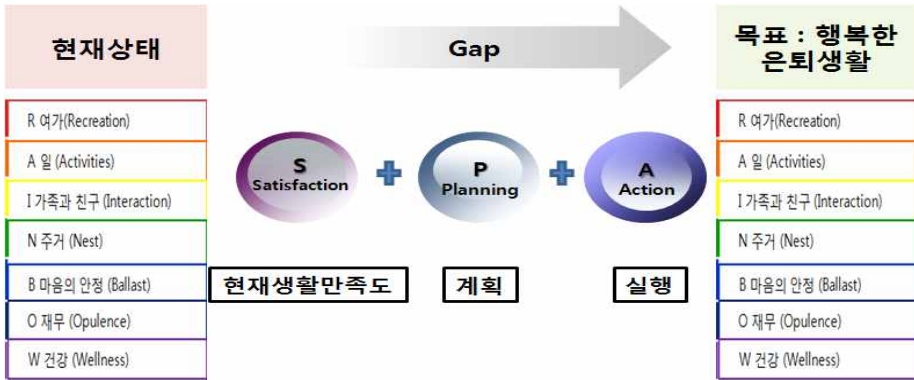
활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Satisfaction)와 계획을 잘 세워서(Planning) 잘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Action)를 측정하여 이를 종합한 것으로 SPA모형이라고 명명하였다.

SPA모형에서 현재생활만족도(satisfaction)는 여가, 일, 가족 및 친구 등 사회적 관계,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 7가지 하위영역에서 현재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미래의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준비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만약 현재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은퇴 후의 삶도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가능성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planning)은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미리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은퇴준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표를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행(action)은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요 요건이다.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은퇴준비종합지수 개발을 위한 은퇴준비모형은 웰빙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생활의 하위영역을 파악하고 체계론과 재무설계과정을 바탕으로 준비의 각 단계를 도출하여 <그림 1>과 같은 개념적인 모형으로 도출되었다. SPA모형은 생애설계 관점에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합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의 기본적 개념이 전체 생애은퇴설계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기반 없이 현재 은퇴준비정도와 현황에 대해 단순 측정하거나, 은퇴준비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SPA모형을 통해 현재생활만족도와 계획 및 실행 단계를 구분하여 전체 은퇴준비과정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개인이나 가계가 은퇴준비과정 중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체계론을 기반으로 SPA모형을 설명함으로써 더욱 설명력을 높였다.



〈그림 1〉 개념적인 은퇴준비모형

IV. 은퇴준비종합지수의 산정

1. 자료의 확보

앞 절에서 설정한 개념적인 은퇴준비모형을 바탕으로 은퇴준비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은퇴생활의 하위영역과 은퇴준비단계를 포괄하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거주 20대~60대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를 확보하였다. 은퇴준비 각 단계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가 집담회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을 통해 은퇴준비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지는 웰빙과 생활의 질, 그리고 웰빙 및 생활의 각 하위영역에 관한 선행연구들(Cummins 1997; Hagerty et al. 2001; Andrew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등을 바탕으로 여가, 일, 가족 및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물, 건강 등 7가지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전체 조사항목은 응답자 판별 문항 12개를 포함한 총 164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세부영역별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여가에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빈도 및 시간을 측정하는 4문항과 신문·잡지, 독서, TV시청, 인터넷 검색 등 소극적 여가활동의 빈도 및 시간, 스포츠 관람 및 참여, 문화활동, 교육 프로그램 및 교양강좌 수강, 사회봉사, 종교 및 친목 모임 활동, 여행 등 적극적 여가활동의 빈도 및 시간이 포함되었다.

일영역에는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일반적 문항, 퇴직금·퇴직연금 관련 문항, 근로복지, senior job, 자원봉사, 배우자 직업 및 은퇴관련 문항 등 19~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산업군, 직위, 고용상태, 직장에 대한 만족도, 정년보장, 정년,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예상은퇴연령, 배우자 직업, 배우자 직장정년, 배우자 직장 정년보장, 배우자 예상은퇴연령에 대해 질문하는 19문항이 포함되었다. 가족 및 친구영역에는 자녀 관련 문항, 부모와 자녀 간의 사적이전 관련 문항, 부모 관련 문항, 자녀 및 부모와의 직·간접 왕래 정도, 부부 및 자녀 간 친밀도, 가족 및 자녀관계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34문항이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교육수준, 자녀 여부, 자녀수, 자녀 연령 및 성별, 자녀 교육수준, 자녀 혼인상태, 자녀와 주고받는 금전적 지원, 배우자 교육수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생존 여부, 나이, 취업상태, 부모와 주고받는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동거가족, 자녀 및 부모와의 직·간접 왕래 정도 등을 측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거영역은 주택의 거주환경 측면과 자금원천으로써의 주택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14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거주주택 유형 및 소유형태, 편의성, 외관 및 내부환경, 거주환경, 은퇴생활재원 활용계획 및 활용방법, 은퇴 후 거주지 이전의향 및 희망 이주지역, 희망 동거가족, 장기간병시 희망 주거지, 주거만족도 등을 측정하였다. 마음의 안정은 심리적 측면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전체 생활만족도와 하위영역별 중요도, 하위영역별 은퇴생활 예상만족도, 은퇴 후 삶에 대한 전망, 하위영역별 은퇴준비도 등 5~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재무영역은 소득, 지출, 은퇴대비저축, 보험,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채 관련 문항, 연금 관련 문항, 상속 및 증여 관련 문항 등 4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으로 소득, 지출, 자녀교육비, 저축, 은퇴저축, 가입보험 종류 및 금액,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상속 및 증여를 자녀에게 줄 의향과 액수,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를 받을 의향과 액수가 포함되었다.

건강영역은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상태로 나누어 11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세부적으로 규칙적 운동 여부, 2년 이내 건강검진 여부, 흡연경험 및 흡연량, 음주습관 및 음주량, 항목별 질병 진단, 키, 몸무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 건강상태, 일주일간의 느낌 및 행동,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측정하였다.

이밖에 거주지, 나이, 성별, 혼인상태, 경제활동여부, 은퇴여부 등 응답자 판별 항목 12개 문항을 포함하여 전체 설문조사지가 구성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지 개발 과정에서 2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각 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사내용과 설문문항, 가중치 설정 및 통계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함으로써 내용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 표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인구, 지역, 연령, 성별 비례할당을 통해 서울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25~65세 이하의 비은퇴자 1,800명을 선정하였고, 온라인 및 일대일 면접(50대 이상의 고연령층)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가계 금융 및 재무의사결정권자로 한정하여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분석에는 경제적 항목 질문에 대한 극단치와 이상값(outlier)를 제외한 1,776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특성 및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은퇴준비종합지수의 개발

1) 하위영역별 은퇴준비지수

은퇴준비종합지수는 은퇴생활의 7가지 하위영역의 은퇴준비지수를 종합한 것으로 각 하위영역의 은퇴준비지수를 먼저 산출하였다. SPA모형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된 표준화회귀계수(β_1 , β_2 , $\Sigma\beta_j$)를 종합하여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지수산출에 포함될 변수와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1,776)

가계특성	구분	N(명)	%	가계특성	구분	N(명)	%		
연령	20대	249	14.0	종사상 지위	자영업	고용주	303	17.1	
	30대	513	28.9			단독자영업	179	10.1	
	40대	523	29.4		근로자	정규직	1,121	63.1	
	50대	390	22.0			비정규직	173	9.7	
	60대 이상	101	5.7			자영업	고용주	303	17.1
성별	남	900	50.7	단독자영업	단독자영업		179	10.1	
	여	876	49.3		근로자		전문/관리	283	15.9
거주지역	서울 및 수도권	979	55.1	사무직			사무직	628	35.4
	부산	206	11.6				서비스판매기타	383	21.6
	대구	121	6.8		건강	매우 좋음	73	4.1	
	광주	138	6.9	좋음		891	50.2		
대전	154	7.7	보통	677		38.1			
세대	Y 또는 N세대	674	33.8	나쁨		132	7.4		
	2차 베이비부머	584	32.9	매우 나쁨		3	0.2		
	1차 베이비부머	360	20.3	주거점유	자가	1,180	66.4		
	전쟁세대	157	8.8		전세/월세/기타	596	33.6		
Life Cycle	미혼기	484	27.3	소득	200만원 미만	281	15.8		
	가족형성기	98	5.5		200~300만원 미만	383	21.6		
	자녀영유아기	232	13.1		300~400만원 미만	383	21.6		
	자녀초중고등교육기	502	28.3		400~500만원 미만	315	17.7		
	자녀대학교육기	186	10.5		500만원 이상	413	23.3		
	자녀독립기	171	9.6		소비	100만원 미만	448	25.2	
	빈둥우리기	87	4.9			100~200만원 미만	628	35.4	
	사별독신기	16	0.9			200~300만원 미만	395	22.2	
Money Cycle	자산형성기	502	28.3	300~400만원 미만		222	12.5		
	자산증식기	527	29.7	400만원 이상		83	4.7		
	자산관리기	493	27.8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375	21.3	
	자산배분기	254	14.3			1,000~3,000만원 미만	412	23.4	
가구원수	1인	305	17.2			3,000~5,000만원 미만	246	14.0	
	2인	573	32.3		5,000~1억원 미만	359	20.4		
	3인	556	31.3	1억원~2억원 미만	172	9.8			
	4인	106	6.0	2억원 이상	193	11.0			
	5인 이상	24	1.5	총자산	1억원 미만	453	26.0		
자녀수	미혼	484	27.3		1억원~2억원 미만	337	19.3		
	기혼무자녀	98	5.5		2억원~3억원 미만	285	16.3		
	1명	314	17.7		3억원~4억원 미만	318	10.6		
	2명	734	41.3		4억원~5억원 미만	133	7.6		
	3명 이상	146	8.2	5억원 이상	351	20.1			

먼저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가정하고 종속변수인 은퇴준비지수를 종합적인 생활만족도(모형1-1), 생활만족도에서 해당 하위영역의 만족도를 제외한 만족도(모형1-2), 종합준비도(모형2-1), 종합준비도에서 해당 하위영역의 준비도를 제외한 준비도(모형2-2), 은퇴생활종합전망(모형3-1), 은퇴생활종합전망에서 해당 하위영역의 생활전망을 제외한 은퇴생활전망(모형3-2), 앞의 모형1-1, 2-1, 및 3-1의 총합(모형4-1)과 1-2, 2-2 및 3-2의 총합(모형4-2) 등 총 8개의 모형(모형1-1~모형4-2)을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¹⁾

$$\begin{aligned}
 \text{은퇴준비지수 } i &= \beta_1 i \times i \text{ 영역의 현재생활만족도} + \beta_2 i \\
 &\quad \times i \text{ 영역에 대한 준비계획} + \Sigma \beta_j j \\
 &\quad \times i \text{ 영역의 준비계획 실행 정도} \qquad (1)
 \end{aligned}$$

i = 여가(R), 일(A), 가족 및 친구(I), 주거(N), 마음의 안정(B), 재무(O), 건강(W)
 j = 준비계획실행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

-
- 1) 모형 1-1 : RAINBOW 만족도 총합 = $\beta_0 + \beta_1^* \text{만족도 } i + \beta_2^* \text{준비계획 } i + \Sigma \beta_j^* \text{실행 정도 } ij + \epsilon$
 - 모형 1-2 : (RAINBOW 만족도 총합 - i 영역 만족도) = $\beta_0 + \beta_1^* \text{만족도 } i + \beta_2^* \text{준비계획 } i + \Sigma \beta_j^* \text{실행 정도 } ij + \epsilon$
 - 모형 2-1 : RAINBOW 준비도 총합 = $\beta_0 + \beta_1^* \text{만족도 } i + \beta_2^* \text{준비계획 } i + \Sigma \beta_j^* \text{실행 정도 } ij + \epsilon$
 - 모형 2-2 : (RAINBOW 준비도 총합 - i 영역 준비도) = $\beta_0 + \beta_1^* \text{만족도 } i + \beta_2^* \text{준비계획 } i + \Sigma \beta_j^* \text{실행 정도 } ij + \epsilon$
 - 모형 3-1 : RAINBOW 은퇴생활전망 총합 = $\beta_0 + \beta_1^* \text{만족도 } i + \beta_2^* \text{준비계획 } i + \Sigma \beta_j^* \text{실행 정도 } ij + \epsilon$
 - 모형 3-2 : (RAINBOW 은퇴생활전망 총합 - i 영역 은퇴생활전망) = $\beta_0 + \beta_1^* \text{만족도 } i + \beta_2^* \text{준비계획 } i + \Sigma \beta_j^* \text{실행 정도 } ij + \epsilon$
 - 모형 4-1 : (RAINBOW 만족도 총합 + RAINBOW 준비도 총합 + RAINBOW 은퇴생활전망 총합) = $\beta_0 + \beta_1^* \text{만족도 } i + \beta_2^* \text{준비계획 } i + \Sigma \beta_j^* \text{실행 정도 } ij + \epsilon$
 - 모형 4-2 : {(RAINBOW 만족도 총합 - i 영역 만족도) + (RAINBOW 준비도 총합 - i 영역 준비도) + (RAINBOW 은퇴생활전망 총합 - i 영역 은퇴생활전망)} = $\beta_0 + \beta_1^* \text{만족도 } i + \beta_2^* \text{준비계획 } i + \Sigma \beta_j^* \text{실행 정도 } ij + \epsilon$

* 여기에서 RAINBOW는 은퇴생활의 7가지 하위영역을 종합한 은퇴준비종합지수를 의미함.

즉 식(1)은 i 영역의 은퇴준비지수는 i 영역의 현재생활만족도와 i 영역에 대한 은퇴 준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i 영역에 대한 은퇴준비계획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합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실행정도 관련 변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변수일지라도 은퇴생활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 관련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면 모형에 포함시켰다. 핀란드에서 수행된 16년간의 종단연구에 의하면 주관적인 웰빙은 은퇴 후에 많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여(Seitsamo 2007) 현재생활만족도를 측정하여 은퇴생활의 웰빙을 전망하는 것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은퇴생활의 웰빙은 미리 계획을 세워 이를 잘 실행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중 각 만족도나 준비도, 전망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표 2>와 같다.

한편 은퇴준비영역(SPA)별 가중치는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은퇴준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과 현재생활에 대한 평가(만족도)에 30%, 계획에 10% 그리고 실행에 60%로 잠정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계수를 활용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하위영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문가 집담회의 결과와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수의 단순화를 위해 하위영역간의 SPA 가중치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은퇴생활 하위영역별 준비지수 산출은 SPA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영역별로 각각 생활에 대한 만족도(30%), 계획(10%), 준비계획 실행(60%)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영역별 은퇴준비지수 산출식은 식(2)와 같다. 하위 영역별 은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10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영역의 은퇴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은퇴준비지수 } i &= i \text{ 영역의 현재생활만족도(S: 30\%)} \\
 &+ i \text{ 영역에 대한 준비계획(P: 10\%)} \\
 &+ i \text{ 영역의 준비계획 실행 정도(A: 60\%)} \quad (2)
 \end{aligned}$$

i = 여가(R), 일(A), 가족 및 친구(I), 주거(N), 마음의 안정(B), 재무(O), 건강(W)

〈표 2〉 은퇴준비종합지수 하위영역별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영역	현재만족도 (Satisfaction)	계획 (Planning)	실행 (Action)
Recreation (여가)	여가생활 만족도	은퇴 후 여가 및 취미활동 준비계획 여부	능동적 여가활동참여 정도 수동적 여가활동참여 정도 은퇴 후 여가 및 취미활동 준비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여가 및 취미활동 준비계획 실행 정도
Activities (일)	일에 대한 만족도	은퇴 후 일 및 사회활동 준비계획 여부	사회봉사활동 참여 정도 은퇴시점의 고려 여부 은퇴 후 일 및 사회활동 준비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일 및 사회활동 준비계획 실행 정도
Interaction (가족 및 친구)	가족생활 만족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준비계획 여부	부부 공동 활동 참여 부부간 대화시간 부부간 가사노동분담 부모-자녀 저녁식사 빈도 사회적 관계빈도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준비계획 실행 정도
Nest (주거)	주거생활 만족도	은퇴 후 주거생활 준비계획 여부	주거점유형태 주거자원의 은퇴재원 활용계획 장기간병기의 주거지 은퇴 후 주거환경에 대한 준비계획 실행 정도
Ballast (마음의 안정)	심리적인 건강상태	은퇴 후 마음의 안정 준비계획 여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용성 재무환경에 대한 수용성 은퇴 후 마음의 안정을 위한 준비계획 실행 정도
Opulence (재무)	전반적인 경제생활수준 만족도	은퇴 후 경제생활 준비계획 여부	은퇴자금 조달 가능성 공적연금보유 여부 개인연금보유 여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및 퇴직연금)보유 여부 은퇴저축(투자) 실행 여부 은퇴 후 경제생활 준비계획 실행 정도
Wellness (건강)	전반적인 건강상태	은퇴 후 건강 준비계획 여부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흡연행태 질병보험, 통합보험, 의료실비보험 가입 은퇴 후 건강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건강을 위한 준비계획 실행 정도

2) 은퇴준비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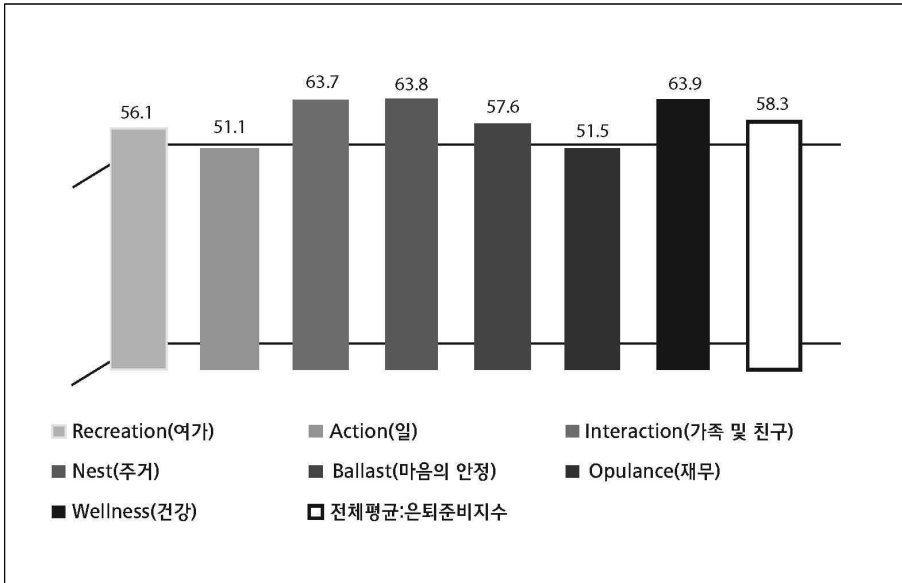
은퇴준비종합지수는 은퇴생활의 7가지 하위영역의 은퇴준비지수를 종합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은퇴준비수준을 하나의 수치로서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도출된 식(2)를 통해 7개 하위영역별로 계산된 은퇴준비지수(R, A, I, N, B, O, W)의 평균으로 은퇴준비종합지수를 정의하였다. 7가지 하위영역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55~75세 이하의 완전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생활의 하위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 하위영역의 은퇴준비도를 식(3)과 같이 산술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은퇴준비종합지수는 하위영역별 은퇴준비지수와 같이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100점에 가까울수록 은퇴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은퇴준비종합지수를 각 하위영역의 첫 글자를 따서 RAINBOW지수로 명명하고자 한다.

$$\text{은퇴준비종합지수} = (R + A + I + N + B + O + W) / 7 \quad (3)$$

- R : Recreation (여가) = 은퇴여가준비지수
- A : Activities (일) = 은퇴일준비지수
- I : Interaction (가족 및 친구) = 은퇴관계준비지수
- N : Nest (주거) = 은퇴주거준비지수
- B : Ballast (마음의 안정) = 은퇴심리준비지수
- O : Opulence (재무) = 은퇴재무준비지수
- W : Wellness (건강) = 은퇴건강준비지수

3. 은퇴준비종합지수(RAINBOW 지수)의 산정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종합지수는 100점 만점에 58.3점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정도는 100점 만점의 절반 수준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7가지 하위영역별 은퇴준비지수는 50점~60점대에 분포하였는데 건강영역의 은퇴준비지수가 63.9로 가장 높았으며, 일영역의 은퇴준비지수가 51.1로 가장 낮았다. 하위영역별 은퇴준비지수를 높은 순부터 나타내면 건강 > 주거 > 가족 및 친구 > 마음의 안정 > 여가 > 재무 > 일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은퇴준비종합지수 점수의 상위 3개 영역인 건강, 주거, 가족 및 친구 영역의 은퇴준비지수는 60점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4개 영역은 50점대로 나타났다.



〈그림 2〉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종합지수(RAINBOW 지수)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체계론을 기반으로 현재생활에 대한 평가와 계획 및 실행을 은퇴준비에 적용하는 SPA모형을 고안하여 은퇴준비종합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은퇴준비지수를 조사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한국인의 은퇴준비수준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행동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은퇴준비종합지수는 단순지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은퇴준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기존의 은퇴지수와 차별성이 있다. 즉 은퇴준비종합지수는 기존의 은퇴준비지수들에서 간과한 비재무적 측면, 특히 은퇴 후 주거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여 은퇴생활의 여러 영역들을 포괄하는 은퇴지수이다. 구체적으로 여가, 일, 가족과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의 7가지 세부 하위영역

(RAINBOW)에서의 은퇴지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은퇴 후 생활의 질은 단순히 경제적, 재정적 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망되어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체계론을 기반으로 재무설계의 현재 생활에 대한 평가와 계획 및 실행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은퇴준비에 적용하는 SPA모형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재생활의 만족도나 은퇴필요자금 마련 평가 수준에서 끝났던 은퇴준비도 측정을 만족도라는 심리적 측면과 계획수립 및 실행이라는 행동적 측면을 모든 포괄하는 체계적인 측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하기 전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은퇴생활임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은퇴준비수준을 측정하여 현재생활과 행복한 은퇴생활과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정도는 100점 만점에 58.3점으로 절반보다 조금 나은 정도에 불과하였다. 은퇴준비가 가장 낮은 가계는 22.7점이었는데 반해 은퇴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는 가계가 87.5점밖에 되지 않아 우리나라 가계는 전반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즉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본격적으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40~50대는 은퇴준비가 부족하며,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은 은퇴를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은퇴준비가 부족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노후에 대한 불안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정확한 현실 인식이 시급하다.

넷째, 은퇴준비종합지수의 7가지 하위영역 중, 일과 재무적 측면의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일영역의 은퇴준비지수가 100점 만점에 51.1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중고령자의 재취업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고실업률 등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경제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사회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건강영역의 은퇴준비지수가 63.9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이 모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영역의 은퇴준비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인식하여 주관적으로 건강상태에 대

해서 과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상태가 은퇴시점이나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며 특히 은퇴를 대비하여 정신적인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리적 준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은퇴준비종합지수의 개발을 통해 전체 은퇴생활의 하위영역을 총망라하는 새로운 개념의 은퇴지수를 개발, 측정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은퇴생활의 하위영역의 상대적인 준비 정도뿐만 아니라 중요도를 밝힐 수 있으며 은퇴준비과정 중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삶의 질 및 웰빙 연구에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에 학술적,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수적용 측면에서도 생애설계적인 관점을 고려한 다양한 가계 특성별 은퇴준비상황 파악이 가능하며, 평균적인 가계 또는 자신의 상황과 동일한 가계 등 다양한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각 개인의 은퇴준비상황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은퇴설계 및 노후생활준비를 위한 금융업계 실제 업무에 활용될 수 있음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은퇴·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노후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먼저, 지속적인 지수정교화 작업을 거쳐 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문항을 설정하여 보다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은퇴준비지수 산출척도 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은퇴준비종합지수 정교화를 위해서 각 문항이 각 하위영역의 점수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SPA 모델의 적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향후 은퇴를 한 60대 이상, 은퇴를 앞둔 40~50대, 그리고 은퇴와는 거리가 있는 20~30대로 새롭게 집단을 구분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지수와 실제 은퇴생활 수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추적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고관여 핵심패널을 선정하여 이들의 은퇴준비지수를 종단적으로 측정하고 은퇴생활에 대한 은퇴 이전의 기대를 반영하는 은퇴전망지수와 은퇴 이후 이들의 은퇴평가지수를 측정하여 은퇴준비종합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은퇴 이전의 전망 및 준비와 은퇴 이후 삶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어 이해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혜·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박주영·조혜진. 2012. “통제위치성향과 은퇴준비행동 간의 관계.”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7(2): 357-383.
- 백은영. 2012.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안중범·전승훈. 2005.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5-33.
- 여윤경. 2002. “목표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83-97.
- 조혜진. 2010.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준비 현황 및 시사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국제세미나 자료집》 연금뉴스 41호 Special Report: 37-46.
- 최현자·김민정A·김민정B. 2008.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109-130.
- 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정현. 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189-214.
- 최현자·주소현·조혜진·김민정·김정현. 2012. “한국인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보고서”.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최혜지·이영분. 2005. “사회심리적 패러다임에 의한 고령자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89-104.
- 홍은실·황덕순. 1996. “도시주부의 가치유형과 계획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15.
- 한경혜·최현자·이정화·은기수·주소현·김주현. 2011. “한국의 베이비부머 연구.” 《메트라 이프노화연구소 발표자료집》.
- Andrews, F.M. and P.R. John 1991.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ohn P. Robinson, Phillip R. Shaver and S. Lawrence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61-114.
- Barrett, G.F. and M. Kecmanovic. 2011. “Subjective Well-Being in Retirement: Evidence from HILDA.” HILDA Research Conference 2011 University of Melbourne. <http://www.melbourneinstitute.com/hilda>.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ummins, R.A. 1997. "Assessing Quality of Life" in Brown, Roy (ed)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odels, Research and Practice*, Cheltenham: Stanley Thornes (Publishers) Ltd.
- Deacon, R.E. & F.M. Firebaugh.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Applications* Boston Mass.: Allyn and Bacon Inc.
- LIMRA and InFRE. 2009. *Will Retirement Assets Last a Lifetime?*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Retirement Education.
- Felce, D. and J. Perry. 1995.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51-74.
- Frey, B.S. and S. Alois.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402-435.
- Hagerty, M.R., R.A. Cummins, A.L. Ferriss, K. Land, A.C. Michalos, M. Peterson, A. Sharpe, M.J. Sirgy, and J. Voge. 2001.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 1-96.
- Kaskie, B., S. Imhof, J. Cavanaugh and K. Culp. 2008. "Civic Engagement as a Retirement Role for Aging Americans." *The Gerontologist* 48(3): 368-377.
- Pollard, E.L. and P.D. Lee. 2003. "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1): 59-78.
- Schalock, R.L. 2004.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What We Know and Do Not Know."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8(3): 203-216.
- Seitsamo, J. 2007. *Retirement Transition and Wellbeing - A 16year Longitudinal Study*.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 The WHOQOL Group. 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1(10): 1403-1409.
- Miriam Webster Dictionary